

여대생의 음주문제 관련 요인

문 영 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음주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무절제한 음주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대학생의 음주 문제는 발달단계상 사춘기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진입하기 위해 생기는 변환적 스트레스의 경험, 동료 집단의 압력, 자아정체감 혼란, 정서적 스트레스, 낮은 자아존중감, 알코올에 대한 무지 또는 왜곡된 지식 및 가족의 알콜 남용력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Han & Han, 2001).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전통적으로 관대하며 대체적으로 대학 입학과 동시에 음주가 허용되는 분위기이다(Kim, 2004). 대학생이 되면 신입생 환영회, 동아리모임, MT, 체육대회 등등 거의 모든 행사 후에 접하게 되는 것이 술로 이러한 대학생의 음주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학생들의 음주는 사교 상 관계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대학생의 빈번하고 과도한 음주는 학업 능률 저하 뿐 아니라 성적 문란과 성폭행과 같은 사회적 문제 및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상의 문제, 사회 적응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Cho, 2000; Park, 2004).

여성 음주자의 경우도 최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고,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한 여성의식의 변화, 음

주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규범의 변화에 따라 술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성인여성의 평생음주 경험률은 80.8%로 보고되었고, 20대의 음주율도 2001년 86.0%에서 2005년 90.5%로 증가하였으며, 19세 이상 여성 연간음주자 중 13.8%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의한 문제음주자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MOHW), 2005).

여성의 음주형태의 특성은 남성에 비해 술로 인한 간 파괴 속도가 빠르며, 음주 시작 연령이 늦고, 남성에 비해 술 마시는 빈도와 양이 적으며, 혼자 마시는 경우가 많다. 음주 시작에서 음주로 인한 피해를 겪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으며, 같은 음주량에도 남성보다 신체적 피해가 더욱 크다. 또한 여성 음주자는 여성의 독특한 성역할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성 음주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Yang & Han, 2003).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를 통한 형식적인 교육과 청소년 음주예방·치료 프로그램이 일부 사회기관에서 치료상담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음주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여대생에게 술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인식을 변화시키고 술의 폐해들을 알리며 음주 대안문화를 제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않지만 친구의 음주

* 군산간호대학 전임강사(교신저자 E-mail: yhmun@kcn.ac.kr).
투고일: 2007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2007년 11월 30일

빈도, 경제상태, 성격특성, 음주결과기대, 거절의 자기효능, 스트레스 지각정도 등 다양한 변인들이 대학생의 음주행위와 음주문제에 관련된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Ann, Kim, & Choi, 2003; Cho, 2000; Kim, Choi, & Ann, 2004; Shin, 1998). 이상의 변인들은 이전의 연구들에서 산발적으로 음주행위나 음주문제와의 관계가 제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주결과기대, 거절의 자기효능의 인지적 요인과 성격, 지각되는 스트레스, 부모와 친구의 영향인 음주관련요인과 여대생의 음주행위, 음주문제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미래 여대생의 음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여대생의 음주행위를 파악하고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여대생의 음주피해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여대생의 음주행위를 파악한다.
- 2) 여대생의 음주행위, 음주문제와 관련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 3) 여대생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의 음주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한 일 간호대학의 여학생 3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음주행위, 음주문제, 음주결

과기대, 거절의 자기효능, 성격, 지각되는 스트레스, 부모와 친구의 음주빈도 도구이다.

1) 음주행위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음주행위를 음주횟수, 음주량 및 폭음의 횟수(Myoung, 2003; Shin, 2006) 또는 음주횟수와 음주량(Lim, 2000; Lim & Kim, 2002)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음주행위는 음주빈도와 음주량을 측정하였다.

- 음주빈도: 음주빈도는 '거의 매일 마신다' 7점, '일주일일에 3-4회 마신다' 6점, '일주일일에 1-2회 마신다' 5점, '한달에 2-3회 마신다' 4점, '한달에 1회 정도 마신다' 3점, '일년에 5-6회 마신다' 2점, '마시지 않는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음주량: 음주량은 맥주, 소주, 막걸리, 기타의 음주량을 '마시지 않는다' 1점에서 반병마다 1점씩 증가하여 '5병 이상' 1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량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2) 음주문제

술을 마시는 동안이나 후에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해 생기는 결석, 지각, 성적 저하 등 학업수행상의 문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분노, 우울 등의 정신건강문제, 싸움, 폭행, 범법행위 등 인간관계 및 사회적응문제와 같은 장, 단기 문제로 Shin(1988)이 개발한 음주문제 측정도구를 Cho(2000)가 수정한 도구인 20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Cho(200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3$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3) 음주결과기대

음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개인의 평가로서, 본 연구에서는 Goldman, Brown과 Christiansen (1987)이 개발한 청소년용 음주결과 기대검사 척도를 Cho(2000)가 수정보완한 도구인 16문항으로 이분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Cho(200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4) 거절의 자기효능

음주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개인적 신념으로, Aas, Kleep, Laberg와 Aaro(1995)가 개발한 자기효능척도인 7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거절의 자기효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등(200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9$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1$ 이었다.

5) 성격

여대생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Cloninger, Przybeck 과 Svrakic(1991)가 제안한 3차원의 성격검사를 기초로 Shin(1998)이 수정한 도구인 45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이 도구는 이분척도로서 새로운 경험추구, 위해 회피, 보상 의존성의 성격차원으로 구분되었다.

-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 새로운 자극이나 잠재적 보상에 대한 단서들에 반응하여 기분이 들뜨고, 단조로움을 참아내지 못하고 새로움에 대한 빈번한 탐색적 활동을 즐기는 성격을 말한다. 이 차원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충동적이고, 탐색적이며, 변덕이 심하고, 흥분을 잘하고 성미가 급하며 사치하고 무질서한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 위해회피 성격: 처벌이나 좌절감을 회피하기 위해 행동을 억제하는 성격을 말한다. 이 차원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조심스럽고 긴장되어 있으며 두려움과 수줍음을 느끼며 억제되어 있고 쉽게 피로해지며 근심이 많은 사람들로 특징지어진다.
- 보상의존 성격: 사회적 승인에 강렬하게 반응하고 이전에 승인되어온 행동을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지닌 성격을 말한다. 이 차원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하고 인정이 있으며 감상적이고 이들은 또한 칭찬과 사회적 단서들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로 특징지어진다.

Kim 등(2004)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경험추구성격 Cronbach's $\alpha=.73$, 위해회피 성격 Cronbach's $\alpha=.70$, 보상의존 성격 Cronbach's $\alpha=.67$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경험추구성격 Cronbach's $\alpha=.78$, 위해회피 성격 Cronbach's $\alpha=.83$, 보상의존 성격 Cronbach's $\alpha=.73$ 이었다.

6) 지각된 스트레스

Cohn, Kamarck와 Mermelstein(1983)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이 스트레스로 지각되는 정도를 측정한다. 문항들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예측할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하고, 과도한 부담이 느껴지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경험되는 스트레스의 수준에 관한 매우 직접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특정 집단을 위한 특정한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향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상은 고등학생 이상이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문항 4, 5, 7, 8에서 역점수로 환산되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되는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Cohn 등(198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5$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0$ 이었다.

7) 부모의 음주빈도

평상시 대상자가 인지한 부모의 음주빈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음주빈도, 어머니의 음주빈도를 의미한다. '거의 매일 마신다' 7점, '일주일에 3-4회 마신다' 6점, '일주일에 1-2회 마신다' 5점, '한달에 2-3회 마신다' 4점, '한달에 1회 정도 마신다' 3점, '일년에 5-6회 마신다' 2점, '마시지 않는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인식함을 의미한다.

8) 친구의 음주빈도

평상시 대상자가 인지한 친구의 음주빈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거의 매일 마신다' 7점, '일주일에 3-4회 마신다' 6점, '일주일에 1-2회 마신다' 5점, '한달에 2-3회 마신다' 4점, '한달에 1회 정도 마신다' 3점, '일년에 5-6회 마신다' 2점, '마시지 않는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가 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인식함을 의미한다.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07년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자기기입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설문지의 응답 방법, 연구의 익명성, 자율성, 비밀 보장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의 참여를 동의 받은 후에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음주관련 특성은 빈도, 백분율과 평균을 구하였다.
- 2) 각 변수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3)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 4) 대상자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변수 선택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 5) 측정도구들의 내적 일관성 검사는 Cronbach's α 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325명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포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20세 이하가 215명(66.2%)로 가장 많았으며, 21-24세가 101명(31.0%), 25세 이상이 9명(2.8%)의 순이었고, 평균연령은 20.12세였다. 학년은 2학년이 112명(34.5%), 3학년이 109명(33.5%), 1학년이 104명(32.0%)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190명(58.5%)이었고, 동아리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가 189명(58.2%)으로 동아리활동을 하는 대상자보다 더 많았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25)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ean
Age(years)	- 20	215	66.2	20.12
	21-24	101	31.0	
	over 25	9	2.8	
Grade	Junior	104	32.0	
	Sophomore	112	34.5	
	Senior	109	33.5	
Religion	To be	190	58.5	
	Without	135	41.5	
Circle	To be	136	41.8	
	Without	189	58.2	

2. 음주관련 특성

대상자의 음주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전체 대상자 중 288명(88.6%)이 술을 마신다고 응

답하였다. 음주빈도는 한달에 2-3회 마시는 경우가 119명(36.6%)으로 가장 많았고, 일년에 5-6회가 64명(19.7%), 한달에 1회 정도가 53명(16.3%)으로 나타났다. 마시는 술의 유형은 중복 응답 결과 맥주가 264명(81.2%)으로 가장 많았고, 소주가 251명(77.2%), 막걸리도 124명(38.2%)으로 나타났다.

<Table 2> Characteristics Related Drinking of Subjects (N=325)

Characteristics	Category	n	%
Drinking	Yes	288	88.6
	No	37	11.4
Frequency of drinking	No drinking	37	11.4
	5-6 times / year	64	19.7
	1 time / month	53	16.3
	2-3 times / month	119	36.6
	1-2 times / week	40	12.3
	3-4 times / week	11	3.4
	Almost everyday	1	.3
Type of alcoholic beverage(multiple responses)	Beer	264	81.2
	Soju	251	77.2
	Makkoli	124	38.2
	Etc.	80	24.6

3.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본 연구에 이용된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의 서술적 통계는 다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들의 평상시 음주빈도는 3.30점(범위 1-7)으로 '한 달에 1회에서 2-3회 사이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회 음주량은 2.62점(범위 1-11)으로 '반병에서 한 병 정도'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평상시 음주빈도는 3.69점(범위 1-7)으로 대상자와 유사하게 '한 달에 1회에서 2-3회 정도'로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평상시 음주빈도는 2.35점(범위 1-7)으로 '일년에 5-6회에서 한 달에 1회 정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의 평상시 음주빈도는 3.97점(범위 1-7)으로 나타나 '한달에 2-3회 정도'가 가장 빈도가 높았다. 음주문제는 '직업적 및 사회적 기능 손상'이 1.29점(범위 1-5), '행동상의 문제'가 1.17점(범위 1-5),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이 1.28점(범위 1-5)으로 음주문제 발생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결과기대는 그렇다와 아니다의 이분척도로 측정된 결과 1.46점(범위 1-2)으로 중간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었다. 거절의 자기효능은 3.09점(범위 1-5)으로 중간정도로 인지하고 있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Variables

(N=325)

Variable	Category	Mean	SD	Range
Frequency of drinking		3.30	1.33	1- 7
Amounts of drinking		2.62	1.36	1-11
Father's influence		3.69	2.01	1- 7
Mother's influence		2.35	1.57	1- 7
Influence of friends		3.97	1.51	1- 7
Drinking problems	Damage of business & social function	1.29	.52	1- 5
	Behavioral problems	1.17	.38	
	Family & interpersonal damage	1.28	.49	
Alcohol expectancy		1.46	.19	1- 2
Refusal self efficacy		3.09	.73	1- 5
Characteristics	Personality of novelty seeking	.48	.23	0- 1
	Personality of harm avoidance	.54	.21	
	Personality of reward dependence	.61	.33	
Perceived stress		2.88	.56	1- 5

었다. 성격은 '새로운 경험추구형'이 0.48점(범위 0-1), '위해 회피형'이 0.54(범위 0-1), '보상 의존형'이 0.61점(범위 0-1)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스트레스는 2.88점(범위 1-5)으로 가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

여대생의 음주빈도, 음주문제, 음주량과 관련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4>.

음주빈도와 음주량($r=.567, p<.001$), 음주문제($r=.394, pp<.001$), 아버지의 음주빈도($r=.115, p=.037$), 어머니의 음주빈도($r=.151, p=.006$), 친구들의 음주빈도($r=.561, pp<.001$), 거절의 자기효능($r=-.346, pp<.001$), 음주결과 기대($r=.306, pp<.001$),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r=.204, p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음주량이 많을수록, 음주문제가 심할수

록,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의 음주빈도가 높을수록, 거절의 자기효능이 낮을수록, 음주결과기대가 높을수록,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일수록 음주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량과 음주문제($r=.444, pp<.001$), 어머니의 음주빈도($r=.176, p=.001$), 친구들의 음주빈도($r=.386, pp<.001$), 거절의 자기효능($r=-.258, pp<.001$), 음주결과 기대($r=.300, pp<.001$),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r=.149, p=.007$)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음주문제가 많을수록, 어머니, 친구들의 음주빈도가 높을수록, 거절의 자기효능이 낮을수록, 음주결과 기대가 높을수록,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일수록 음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문제와 아버지의 음주빈도($r=.184, p=.001$), 어머니의 음주빈도($r=.149, p=.007$), 친구들의 음주빈도($r=.333, pp<.001$), 거절의 자기효능($r=-.336,$

<Table 4> Correlation among Research Variables

(N=325)

Variable	Frequency of drinking		Amounts of drinking		Drinking problems	
	r	p	r	p	r	p
Amounts of drinking	.567	<.001				
Drinking problems	.394	<.001	.444	<.001		
Father's influence	.115	.037	.099	.074	.184	.001
Mother's influence	.151	.006	.176	.001	.149	.007
Influence of friends	.561	<.001	.386	<.001	.333	<.001
Refusal self efficacy	-.346	<.001	-.258	<.001	-.336	<.001
Alcohol expectancy	.306	<.001	.300	<.001	.295	<.001
Perceived stress	.038	.495	.035	.526	.200	.018
Personality of novelty seeking	.204	<.001	.149	.007	.242	.000
Personality of harm avoidance	.012	.828	-.006	.918	.058	.299
Personality of reward dependence	.083	.137	.071	.203	-.046	.410

pp<.001), 음주결과 기대(r=.295, pp<.001), 지각된 스트레스(r=.200, p=.018),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r=.242, p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의 음주빈도가 높을수록, 거절의 자기효능이 낮을수록, 음주결과기대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일수록 음주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대상자의 음주문제 영향요인

대상자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음주문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거절의 자기효능이었으며 다음은 친구들의 음주빈도, 지각된 스트레스, 아버지의 음주빈도,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 음주결과 기대였고 이들 6개의 변수가 음주문제를 23.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절의 자기효능이 낮을수록, 친구들의 음주빈도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일수록, 음주결과 기대가 높을수록 음주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88.6%가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여대생의 음주행태를 조사한 선행연구인 Yang과 Han(2003)의 연구결과인 92.43%보다는 낮았으나 Rhim, Lee, Choi와 Kim(2004)의 연구결과인 89%, Lee(2003)의 연구결과인 89.6%와는 유사한 결과였다.

음주빈도는 평균 3.30점(범위 1-7)으로 절반정도(48.9%)가 한달에 2-3회에서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0.3%(1명)이었다. 음주량은 2.62점(범위 1-11)으로 반병에서 한 병 정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의 음주행위 영향요인을 분석한 Kim

등(2004)의 연구에서는 음주빈도 3.84점, 음주량은 2.63점으로 본 연구에 비해 음주빈도는 약간 더 높고 음주량은 거의 유사한 결과였다.

음주문제는 5점 만점으로 직업적 및 사회적 기능 손상이 1.29점, 행동상의 문제가 1.17점,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이 1.28점으로 음주문제 발생정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Kim 등(2004), Cho(200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었다. 현재 여대생의 음주문제가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의 음주문화의 특성은 어려움없이 술을 구입할 수 있고, 취중에 한 행동은 쉽게 허용되고, 다른 사람에게 술을 권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 자랑거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 음주를 대인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생각하는 경향, 알코올 중독이나 과음에 대한 수용도가 대체로 높아(Yang & Han, 2003), 이러한 행동을 그대로 묵인하는 경우 성인이 되어가면서 가정과 사회생활 가운데 음주의 빈도와 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음주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늘어가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대생의 음주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음주를 시작한 연령이 어릴수록 평생 음주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치료 및 회복이 어렵고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희박해 지는 경우가 있다(Kim et al., 2004). 따라서 여대생을 음주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 변수들과 음주빈도, 음주량, 음주문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음주빈도는 음주량이 많을수록, 음주문제가 심할수록,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의 음주빈도가 높을수록, 거절의 자기효능이 낮을수록, 음주결과 기대가 높을수록,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량은 음주문제가 많을수록, 어머니, 친구들의 음주빈도가 높을수록, 거절의 자기효능이 낮을수록, 음주결과기대가 높을수록,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의 음주빈도가 높을수록, 거절의 자기효능이 낮을수록, 음주결과기대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

<Table 5> Affected Factors of Drinking Problems

(N=325)

Variable	R	R ²	β score	t	p
Refusal self efficacy	.337	.114	-.184	-3.387	.001
Influence of friends	.417	.174	.201	3.721	<.001
Perceived stress	.444	.197	.103	1.989	.048
Father's influence	.462	.213	.120	2.419	.016
Personality of novelty seeking	.476	.227	.128	2.468	.014
Alcohol expectancy	.486	.237	.112	1.997	.047

트레스가 높을수록,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일수록 음주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2001)은 친구의 음주빈도, 부모의 음주에 대한 태도, 음주기대가 음주빈도에 영향을 미치며, 친구의 음주빈도, 부모의 음주태도가 음주량에 영향을 미치고, 친구의 음주빈도, 음주친구의 수, 음주기대가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Choi, Im과 Yun(2002)은 여대생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 음주에 대한 관용적 태도, 거절에 대한 자기효능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대상자들의 음주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위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여대생의 음주문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거절의 자기효능이었으며 다음은 친구들의 음주빈도, 지각된 스트레스, 아버지의 음주빈도,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 음주결과 기대였고 이들 6개의 변수가 음주문제를 23.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거절의 자기효능과 친구들의 음주빈도는 음주관련문제를 예측하는 요인이었고(Ann et al., 2003; Cho, 2000; Kim et al., 2004)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청소년기나 초기성인기의 음주는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며 친구의 압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절의 자기효능은 음주가 가능한 상황에서 자기통제감을 통해 실제적인 음주행위와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음주문제 예방프로그램에 여대생들이 원하지 않는 술모임이나 술잔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자기주장 훈련 등 거절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스트레스는 여대생의 음주문제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음주관련 문제정도가 높았다는 보고(Yang & Han, 2003)와 유사하며, 문제음주자의 경우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다른 대처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들(Choi & Lee, 1997; Kim, 2001)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대생들에게 올바른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음주하는 아버지를 가진 가족의 음주문화는 자녀들에게 음주에 대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 특히 아버지의 음주

태도나 음주문화를 재정립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으로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이 확인되었다.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은 주로 충동성, 반사회성 같은 행동 통제의 부족을 반영해 주는 성격특성으로 지금까지 여러 연구(Ann et al., 2003; Cho, 2000; Cho, Kwon, Kim, & Seo, 2004; Kim et al., 2004; Shin, 1998)에서 음주문제나 음주행위의 성격적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본 연구의 결과도 행동 통제의 부족이 음주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격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어떤 성격특성의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자주 술을 마실 때 음주문제 발생의 위험도가 높은지를 예측해볼 수 있으며, 성격 유형에 따라 그 사람에게 보다 더 적절하고 효과적인 예방적 개입을 하는 데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음주결과 기대가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은 음주를 통해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이완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음주량과 음주문제가 증가한다는 결과(Ann et al., 2003; Cho, 2000)와 일치한다. 따라서 여대생들에게 음주의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음주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여대생의 음주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한 일 간호대학의 여학생 325명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이었다. 연구도구로 음주행위는 음주빈도와 음주량, 음주문제는 Shin(1988)이 개발하고 Cho(2000)가 수정한 음주문제 측정도구로, 음주결과기대는 Goldman 등(1987)이 개발하고 Cho(2000)가 수정보완한 청소년용 음주결과 기대검사 척도로, 거절의 자기효능은 Aas 등(1995)이 개발한 자기효능척도로, 성격은 Cloninger 등(1991)이 제안한 3차원의 성격검사(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를 기초로 Shin(1998)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지각되는 스트레스는 Cohn 등 (1983)의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 중 288명(88.6%)이 음주를 하고 있었으며, 음주빈도는 한달에 2-3회 마시는 경우가 119명(36.6%), 일년에 5-6회가 64명(19.7%), 한달에 1회 정도가 53명(16.3%)으로 나타났다. 마시는 술의 유형은 중복 응답 결과 맥주가 264명(81.2%)으로 가장 많았고, 소주가 251명(77.2%), 막걸리도 124명(38.2%)으로 나타났다.
- 2) 아버지의 평상시 음주빈도는 3.69점(범위 1-7)으로 '한달에 1회에서 2-3회 정도', 어머니의 평상시 음주빈도는 2.35점(범위 1-7)으로 '일년에 5-6회에서 한달에 1회 정도', 친구들의 평상시 음주빈도는 3.97점(범위 1-7)으로 '한달에 2-3회 정도'로 나타났다. 음주문제는 '직업적 및 사회적 기능 손상'이 1.29점(범위 1-5), '행동상의 문제'가 1.17점(범위 1-5),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이 1.28점(범위 1-5)으로 음주문제 발생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결과기대는 1.46점(범위 1-2), 거절의 자기효능은 3.09점(범위 1-5)으로 중간정도로 인지하고 있었다. 성격은 '새로운 경험추구형'이 .48점(범위 0-1), '위해 회피형'이 .54(범위 0-1), '보상 의존형'이 .61점(범위 0-1)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스트레스는 2.88점(범위 1-5)으로 가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음주빈도는 음주량이 많을수록, 음주문제가 심할수록,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의 음주빈도가 높을수록, 거절의 자기효능이 낮을수록, 음주결과기대가 높을수록,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일수록 높았다. 음주량은 음주문제가 많을수록, 어머니, 친구들의 음주빈도가 높을수록, 거절의 자기효능이 낮을수록, 음주결과기대가 높을수록,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일수록 많았다. 음주문제는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의 음주빈도가 높을수록, 거절의 자기효능이 낮을수록, 음주결과기대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일수록 음주문제가 많았다.
- 4) 음주문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거절의 자기효능이었으며 다음은 친구들의 음주빈도, 지각된 스트레스, 아버지의 음주빈도, 새로운 경험추구 성격, 음주결과 기대였고 이들 6개의 변수가 음주문제

를 23.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음주 프로그램의 연구와 교육시 다음을 고려할 것을 제언한다.

- 1) 여대생들의 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본 연구에서의 음주문제 영향요인을 고려할 것을 제언한다.
- 2) 본 연구는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Aas, H., Klepp, K. I., Laberg, J. C., & Aaro, L. E. (1995). Predicting adolescents' intentions to drink alcohol: Outcome expectancies and self efficacy. *J Stud Alcohol*, 51, 293- 299.
- Ann, J. S., Kim, H. K., & Choi, E. S. (2003). Factors influencing the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of adolescents.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14(1), 55-65.
- Cho, H. (2000). *Developing a predictive model for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Cho, W. J., Kwon, I. S., Kim, G. S., & Seo, K. M. (2004). Relationship between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 and the personalities of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15(3), 471-481.
- Choi, M. H., & Lee, T. Y. (1997). Stress and coping strategy of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Health Assoc*, 23(2), 60-71.
- Choi, M. S., Im, M. Y., & Yun, Y. M. (2002). A predictive model comparison by sex for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among Korea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2(1), 77-88.
- Cloninger, C. R., Przybeck, T. R., & Svrakic,

- D. M. (1991). The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U.S. normative data. *Psychol Rep, 69*, 1047-1057.
- Cohn, S., Kamarck, T., & Mermelstein, R. A. (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 Health Soc Behav, 24*, 385-396.
- Goldman, M. S., Brown, S. A., & Christiansen, B. A. (1987). Expectancy theory: Thinking about drinking. In H. T. Blane & K. E. Leonard(Eds.), *Psychological theory of drinking and alcoholism*(pp. 181-226). N. Y.: Guilford Press.
- Han, S. H., & Han, D. W. (2001). The related factors of alcohol drinking in Korean young adults. *J Korean Public Health Assoc, 27*(2), 130-143.
- Kim, H. K., Choi, E. S., & Ann, J. S. (2004). Factors influencing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of the female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9*(2), 205-216.
- Kim, S. Y. (2004). *Analysis on factors that affect drinking effect expectation and binge drinking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Y. S.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motives for drinking and drinking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Public Ment Health Soc Work, 9*, 5-23.
- Lee, W. J. (2003). Factors related to college student's problem drinking. *J Korean Soc Health Educ Promot, 20*(9), 109-124.
- Lim, K. H. (2000). *A study of the influences of psychosocial variables on drinking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Lim, K. M., & Kim, S. J. (2002). The effects of drinking prevention program on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 alcohol expectancy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1*(4), 548-559.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The third korea national health & nutrition examination survey-health behavior of adults*. Seoul: Author.
- Myoung, K. H. (2003).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leisure activities & drink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Park, B. J. (2001). *Relationship among family functioning, adolescent's depression, and their drinking and smoking: Improving the youth welf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Park, C. L. (2004). Positive and negative consequence of alcohol consumption in college students. *Addict Behav, 29*(2), 311-312.
- Rhim, K. W., Lee, J. H., Choi, M. K., & Kim, C. J. (2004).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drinking and smoking habits. *J Korean Public Health Res, 30*(1), 57-70.
- Shin, H. W. (1998). *The effects of personality and drinking motives on drinking proble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Shin, K. E. (2006). *The effect of drinking prevention program on drinking-related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vocational high school gir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Yang, S. H., & Han, K. S. (2003). Drinking pattern, problem related drinking, perceived stress, way of coping, and symptoms of stress of the female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3*(7), 1057-1064.

- Abstract -

Factors Influencing Drinking Problems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Mun, Young-He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drinking problems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to provide basic data for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health and prevent drinking problems.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7 to 21, 2007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f 325 female college students in G Cit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drinking problems was refusal self efficacy. The combination of the influence of friends, perceived stress, personality of novelty seeking, and alcohol expectancy accounted for 23.7% of the variance in drinking problems. **Conclusion:** From the results, I recommend that refusal self efficacy, influence of friends, perceived stress, personality of novelty seeking, and alcohol expectancy should be contained in developing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preventing drinking problems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 Drinking, Self Efficacy, Personality, Stress

* Full-time Lecturer, Kunsan College of Nursing.